

지역특이사항

김제시 모악회 월례회의 개최

김제시(모악회장 이진식)는 20일 김제시 기관·사회단체장 월례회인 모악회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모악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8회 김제지평선축제 주요 행사 보고를 통해 5년연속 대표축제 선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법률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창구인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봉합운영 안내, 김제산업단지지의 수질오염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낚시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하는 등 시정에 대한 각 기관·사회단체장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 발생한 역대 최대규모의 지진 발생으로 지진대피요령의 숙지와 지진 안전대책에 대한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였으며 북핵 5차 핵실험에 대하여는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허수아비 차전놀이 펼쳐

대한민국 4년 연속 대표축제인 제 18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선보일 허수아비 차전놀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김제시 교월동(동장 김태환)에서는 20일 입석전승관에 지평선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허수아비 차전놀이를 실시하였다.

지난 8월 무더위를 잊으며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만들기 시작한 허수아비는 차전2점을 비롯하여 총 49점의 허수아비를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고 추석명절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옛 세시 민속놀이의 하나로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 차전놀이를 허수아비 테마로 정한 교월동은 지평선축제와 더불어 김제 평야가 황금물결로 출렁이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소방서구조대 인명구조훈련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연휴가 끝난 지난 19일, 119구조대원들의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시간장차 개방 등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호자의 신변확인 및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에서의 시간개방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되었다. 시간개방의 경우 내부가 응급상황인지 비응급상황인지 신고자 말로만 판단이 어렵고 경찰 입회하에 개방이 되더라도 파손여부에 대한 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신속한 인명구조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에 음성·영상장비를 이용한 대비책 등의 교육도 병행되었다. 관내 아파트 등 다양한 케이스를 분석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훈련으로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읍면 복지허브화 박차

부안군은 지난 6월부터 현행 읍사무소의 복지기능을 강화해 원스톱 맞춤형 복지허브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은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읍면이 지역의 복지중심기관이 돼 보건소·민간복지기관·지역주민 등 민간 부문과 함께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려고 시행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시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면서 불편 해소는 물론 취업 등에도 큰 도움을 주면서 희망을 찾아가는 곳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각 기관별로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은 고용센터는 구인 2,305건, 구직 3천684건, 취업 1,403건, 실업인정 7,345건, 수급자격 인정 1,295건, 모성보호지원 603건, 알선 669건 등이다

고용과 복지, 한 곳에서 해결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 모성보호지원 등 '희망공간'으로 자리매김

지난해 12월 전북도 내 최초로 문을 연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시민 희망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각 기관에서 수행했던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협업 모델이다. 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8억5,500만원을 시비 4억5,700만원을 더한 13억1,200만원을 투입,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해 개소했다.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한 곳에서 해결하고 있는 이 곳에서는 고용분야의 고용센터, 시 일자리센터, 장애인취업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복지분야에 희망복지지원,

자활고용지원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면서 불편 해소는 물론 취업 등에도 큰 도움을 주면서 희망을 찾아가는 곳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각 기관별로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은 고용센터는 구인 2,305건, 구직 3천684건, 취업 1,403건, 실업인정 7,345건, 수급자격 인정 1,295건, 모성보호지원 603건, 알선 669건이고, 여성새일터는 구인 104건, 구직 577건, 알선 223건, 취업 180건, 장애인취업센터 알선 27건, 취업 16건, 기타 70건이다.

희망복지지원과 상담서비스 106건, 자활고용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 75건, 서민금융상담 84건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히, 센터 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민원인에게 제공한 연계서비스는 3,224건에 달해 협업모델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편 현장점검 정척 간담회 관련,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김제시장은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 내 실무자협의회와 사례관리자 회의, 정보교류의 날 운영 등 기관 간 협업기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물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해 더욱 탄탄한 시민 희망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강화 특별교육 실시

복지리더들 자질 함양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읍면동복지허브추진강화 및 지역사회보장증진에 참여하는 복지리더들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장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포함한 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기동대, 복지봉사, 복지위원 등 500명이 참석했다.

교육 진행은 보건복지부 읍면동복지허브추진단 기반조성팀 박민정팀장을 초빙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위한 맞춤형 복지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민관협력체의 역량강화 및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영주 강사의 교육이 이어졌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민·관협력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4월부터 '읍면동 복지기동대'를 조직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해 가고 있으며 복지 체감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복지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라고 강조하고, "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교통통제 실시

25일 오전 8시부터 1시까지 시민운동장에서 만경삼거리

제15회 김제시체육회(회장 이진식)에서는 제15회 김제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와 관련하여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5회 김제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는 시민운동장에서 하프코스, 10km, 5km 건강코스 등 4개 종목 약 4,000여명 참가자가 동시에 출발함에 따라 행사가 열리는 9월 25일(일) 오

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운동장 ↔ 서흥교차로 ↔ 서암사거리 ↔ 후석삼거리 ↔ 서김제C ↔ 만경삼거리(삼박주유소) 구간이 통제된다.

또한 행사당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 100여 명이 행사코스 교차로와 도로변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제시체육회는 "우선 마라톤행사와

관련한 교통통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드리며 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 시 통제하지 않는 우회도로를 미리 알고 운행하시길 바라고, 가끔씩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번 제15회 김제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푸드뱅크 기부나눔축제 '성황'

월드프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읍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련한 푸드뱅크 기부나눔축제가 20일 시청 잔디마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정읍시와 정읍지역 내 기업인 신우&F와 빛고운, 도원&B, 수자원공사, CJ, 덴마크우유, 홈플러스 등에서 즉석밥과 통조림, 참치, 고추장 등을 후

원했다. 행사에서는 특히 그간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정읍에이스 파리바게트에 감사패를 전달, 눈길을 모았다.

이날 후원업체의 기부로 모아진 식품 박스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저소득층 150세대를 직접 방문해 인부 확인과 함께 각 세대에 1박스씩을 전달했고,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대해서는 개소 당 5박스씩 모두 150박스를 전했다.

박진하 사회복지관장은 "기탁자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기탁품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과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밝혔다.

또 김생기 시장은 "우리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정성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이후에도 서로의 뜻을 모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정읍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참뽕 요리 경연대회 개최

부안군 10월 15일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부안 참뽕 요리 경연대회 '요리 뽕! 조리 뽕! 요리조리 쿵 뽕!'이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가 주최하고 (주)남부농업 농가주부모임이 주관으로 오는 10월 15일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 등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2명 이상이 1팀으로 신청하면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총 15팀이 경연에 참가하게 된다.

경연대회는 오디·뽕을 이용한 일품, 코스 뷔페, 레스토랑 요리 등 한 가지를 선택해 출품하면 되며 심사기준은 국제요리 경연대회 심사기준을 적용해 조리과정 및 기술, 메뉴구성, 작품성, 상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부안군청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



수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부안 참뽕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 부안 오디·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향토자원을 이용한 6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지평선축제서 착한기업 선배

김제쌀 우수성 알려

김제쌀의 우수성을 상품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선봉장 역할을 수행한 착한기업(투마루, 한우물영농조합법인)이 대한민국 4년 연속 대표축제인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선보인다.

금민평야의 김제쌀은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2012년부터 3년 연속 입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품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그간 소비자 인식에 기대에 못 미쳐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에서는 김제의 황금들녘에서 생산된 쌀을 함유한 투마루, 피아나는 하얀빛 에센스 크림(미백 기능성) 등 4종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 제품들을 통해 투마루는 김제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이번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내 설치된 '지평선 브랜드 키프트샵'에 전시 및 홍보하여 알릴 예정이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9월 29일부터 5일간 김제 벽골제에서 열리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풍요로움과 감동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한민족의 전통농경문화와 소중한 지역문화유산을 현대의 콘텐츠로 접목하여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었듯이, 이제는 금민평야 황금들녘에서 생산된 최고의 농특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기여하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김제시민과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번 훈련은 격포항을 출항해 피장금항으로 향해 중인 700톤 급 화물선과 500톤 급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유조선 선미 화물탱크가 파손돼 B/C유 30톤 가량이 해상에 유출 되는 해양오염사고를 가상으로 이뤄진다.

부안해경, 격포 앞바다 해양오염 방제훈련

부안해경서(서장 조성철)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부안군 격포항 북서쪽 3km 해상에서 기름 유출과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오염 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해상 방제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격포항을 출항해 피장금항으로 향해 중인 700톤 급 화물선과 500톤 급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유조선 선미 화물탱크가 파손돼 B/C유 30톤 가량이 해상에 유출 되는 해양오염사고를 가상으로 이뤄진다.

사고 직후 부안해경서에 방제대책부를 구성하고 사고 해역의 선박운항을 통제하는 한편, 경비함정을 급회해 기름의 확산 경로를 파악하고 방제정 등 10척의 선박을 동원, 더 이상의 기름 확산을 방지하려고 사고 선박 주변에 오일펜스를 펼쳐게 된다. 특히 해양경찰 구조대가 마그네틱

자석과 공기메트를 이용해 유조선의 선체 파공 부위를 응급 봉쇄한 후 파공된 탱크에 남아있는 기름을 유조선 내 안전한 탱크로 이적하고 유회수기 2대를 동원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고 수거된 유출유는 폐기물 임시 저장소와 폐유처리업체로 이적해 처리하게 된다.

조성철 부안해경서장은 "이번 훈련은 해양오염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민·관 합동 방제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시된다"면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 대처능력 향상과 오염사고 방제능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부안 해경을 비롯한 부안군, 고창군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7개 기관 및 단 단체에서 총 인원 70명과 선박 10척, 유회수기 2대, 오일펜스 20m 가 동원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